

2013년 5월 12일의 일기 _ Ha Yea Jun (hayeya@gmail.com)

아침 7시 15분 눈을 떴다.

오늘도 아프리카에서 164일째이다. 그러나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2시 15분에 나는 눈을 뜬 것이다. 아침 예배를 드린 후 바로 공항으로 가야 하기에 서둘러 준비를 시작한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햇살은 밝고 공기는 맑다. 멀리인 듯 가까운 곳에서는 염소들이 이른 아침부터 합창을 시작했다. 같은 염소끼리라도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우짖는 것이 마치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염소들끼리는 무슨 말을 주고 받는 거지, 라고 혼자 생각하다가 샤워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머릿결이 아무래도 많이 상했다. 온수가 가능한 한국과 달리 보일러가 없다 보니 물을 끓여서 샤워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찬물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다 보니 머리 끝이 갈라지고 푸석푸석하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싶지만 생머리를 했다가는 드라이어도 없는 이 곳에서 머리는 무슨 수로 말린담. 시내에 가는 날이니 평소와 다르게 트리트먼트도 조금 써 본다.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다. 샤워실에서 방까지 걸어가는 중에는 항상 슬리퍼 안으로 모래가 들어온다. 샤워실에서 발을 씻고 나와도 무용지물이다. 기숙사 세면대에서 다시 한번 세척(?)을 해야만 한다.

아침시가 되어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 전, 떠나는 글렌에게 다같이 한마디씩 하기로 한다. 이건 영 어색하다. 다들 나에게 울지 말라며 아쉬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나는 하지 않던 아이서도 따가워 약간 눈물이 맺힌 것이었는데 민망했다. 내가 남긴 한 마디는, "잘 들어가."였다. "수고했어."라고 하고 싶었지만 앞 사람이 남겼기 때문이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과 디모데후서 2장이었다. 디모데후서는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이었고, 이사야서의 재단 솜뿔을 입술에 대다는 구절이 며칠 전에 생각났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읽을 수 있어 감사드렸다.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려는데 차 한대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남자들이 아무리 밀어봐도 안 된다. 환송은 모두가 공항에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결국 몇 사람 먼저 한 차

에 타고 출발했다. 이미 많이 늦었다. 하염없이 다른 차가 고쳐지기를 기다리는데 배가 고파온다. 아침 식사로 사과 1개와 빵과 율무차를 마셨는데도 열한 시가 조금 넘자 배가 고파온다. 식당으로 들어가 오렌지 하나를 열심히 깎았다. 그리고 나눠 먹었다. 그러더니 마침 차가 고쳐져서 도착했다. 이미 시간은 열한시 삼십분. 한 킬로미터쯤 갔을 때였다. 아뵐싸 내 아이폰을 식당에 두고 온 게 생각났다. 안 그래도 늦었는데 식당으로 돌아가야 하니 일행들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결국 다시 와서 부리나케 핸드폰을 챙겨서 차에 탑승하고 이제 공항으로 뒤따라간다.



가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모른다. 늦어도 12시 30분까지는 글렌이 보딩을 마쳐야 하는데 그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정말 두근두근했다. 그리고 오늘이 시내 초행길인 동규까지 긴장한 상태가 역력했다. 재촉할 수도 서두를 수도 없어서 마음만 급하고 기도를 드렸다. 6월에 한국에 가면 물론 볼 수 있을테지만 말라위에서 마중하는 것과 한국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르니까. 가는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얼마 전 다운받아둔 아이폰

입을 커 소설책을 읽어나갔다. 김중혁 작가의 <미스터 모노레일>. 잠깐이라도 눈을 떼지 않게 만드는 필력에 감탄하고 또 분명히 허구인데 실존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황들에 엄청난 몰입을 하게 되었다. 먼 길을 거치고 거처 한 시간 반만에 아슬아슬하게 공항에도 착했더니 딱 12시 30분이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인즉슨 말라위 공항의 전산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티켓 발권에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탑승 자체가 늦어지고 있었다. 어저면 다행이었다. 충분히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생겼고, 다같이 단체사진도 찍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우리는 근처 한 카페로 이동해 늦은 점심식사를 했다. 우리 테이블의 남자들은 저마다 딸기, 바닐라, 초코 밀크쉐이크에 치즈버거 등과 치킨 누들을 주문했다. 나는 이름 모를 아이스티와 -당연히 복숭아맛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웨이터에게 물어보니 복숭아는 아니었지만 본인도 이름을 모르는 무슨 열매를 이야기했다- 카페의 주요 메뉴인 토스트 샌드위치를 시켰다. 물론 치즈 앤 토마토다. 이 토스트 샌드위치는 그릴에 굽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속에는 토마토뿐 아니라 세 종류의 치즈가 녹아 들어 있어 치즈의 풍미를 가득 느끼게 해 준다. 물론 다

양한 먹거리를 좋아하는 내게 딱 맞는 사이드 디쉬들도 서너 종류 함께 제공되어 한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치킨 샐러드는 메인 메뉴로 시켜 다같이 나눠 먹었다. 메뉴 하나하나가 정말 다 맛있었다.



디저트는 당근 케이크와 텀버린 치즈케이크를 시켰는데 글썄 나에게 당근 케이크는 별로였고, 치즈케이크는 크리미한 느낌이었고 정통 치즈케이크맛은 아니었지만 디저트로 손색 없이 부드럽고 달콤했다. 3G가 잘 터지는 환경이어서 한국에 계시신 부모님과도 잠깐 보이스톡을 할 수 있었다. 엄마는 어제 있었던 교회언니의 결혼식을 이야기했고, 누가 누구를 데려왔고, 그 남자는 무엇을 입고 있었고, 그 여자의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기쁘고 좋은 때일수록 겸손하게 행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멀리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도 아주 반가웠다.

이메일을 하나 쓸 게 있었는데 시내에서 인터넷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아 몇 번을 시도했다. 한국시간으로 12시가 되기 전이면 이 곳은 오후 5시경까지가 될 것이다. 4시 30분쯤 마을로 돌아오며 미셸 브랜치의 볼 아이 원티드라는 노래를 오랜만에 들었고, 하림의 난치병을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형의 음악목록을 보다가 "서티 세컨즈 투 마스"와 "엘로카드"라는 그룹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첫번째 팀의 이름이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고, 엘로카드의 보컬은 특이한 음색이며 매력적이었다. 준형은 엘로카드에는 밴드라는 특이하게 바이올린 세션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해주었고, 네이버를 찾아보았지만 이들 밴드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다. 기회가 되면 노래를 옮겨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늘은 내게 어떤 하루였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설렘과 기분좋은, 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우울한 기분은 한 순간도 느낄 수 없었고, 군더더기 없이 기쁘고 좋은 날이었다. 휴가는 19일 남았고, 이제 곧 다시 공항에 오게 되겠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해야겠다고도 생각했다. 이제 좀 쉬고 쉬자.